



## KFCF 일반

### ■ '2011년도 CP 등급평가 설명회' 개최

- CP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확대 등 유인체계 개선 계획

공정경쟁연합회는 5월 30일 FC홀에서 '2011년도 CP등급평가 설명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설명회는 현대자동차, 포스코, 두산, 에스케이 그룹 등 80여개 기업의 임직원 14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서 열렸습니다.



CP 등급평가 설명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CP 정책방향 브리핑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등급평가 개편 모델 설명 △ 공정경쟁연합회의 2011년도 CP 등급평가 신청 안내 및 평가일정 소개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정위 김윤수 경쟁정책과장은 설명회를 통하여 향후 CP 정책방향에 대하여 "사후 규제보다는 사전 예방활동이 중요

하기 때문에 CP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확대 등 유인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직권조사 면제 분야 확대 및 CP등급평가중 수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CP 운영고시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운영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P 등급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CP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CP 제도 컨설팅 등 기업 지원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엄격히 분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부분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수행하고, CP 등급평가 신청기업을 안내·모집하고 이를 지원하는 컨설팅 등의 업무는 공정경쟁연합회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합회는 금년도 CP 등급평가와 관련하여 6월 초부터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여 11월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운영고시를 통하여 CP 등급평가의 평가항목 통합·조정되어, 2011년 CP등급평가에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행 13개 평가항목 76개 평가지표 중 상호 중복되는 항목을 통합·조정하여 7개 평가항목 38개 평가표로 대폭 축소함으로써 제출서류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CP 등급평가에 응시하는 부담을 완화하여 CP의 저변 확산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합회 소식



## ■ 제4차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의 자율 전환,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위임기준 개선, 동반성장협약 이행 평가항목 개선 등 활발한 제안과 논의 전개

경쟁당국과 업계 간의 공정거래 관련 제반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경쟁정책협의회가 지난 6월 23일에 개최되었습니다.



경쟁정책협의회는 업계와 경쟁당국 간의 만남을 통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며, 효율적인 경쟁정책 운용에 관하여 실무 및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0년 6월 본 연합회 내에 설치되었습니다.

금번 협의회에서는 경쟁정책 및 기업협력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정책 및 제도 등이 건의·제안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되었고, 그에 대한 경쟁당국의 입장과 방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협의회의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기업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허용 △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개선(납품단가 조정신청권 협동조합 위임기준, 계약체결일 경과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신청 기준, 하도급대금 감액에 따른 서면기재사항 축소) 요청 △ 하도급법 개정안 중 기술탈취 및 유용에 있어서의 '기술자료'의 범위 △ 동반성장협약 이행 평가항목 개선 등의 건의안이 상정되어 경쟁당국과의 심층적인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실시될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에 대한 업계의 고충과 경쟁당국의 기대를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본 연합회 김종선 회장을 비롯하여 삼성전자 전광호 전무, 엘지전자 이충학 상무, 현대자동차 이용배 전무, SK에너지 강선희 전무, 대한상공회의소 이현석 전무,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상무, 보성파워텍 임도수 회장, 백천세척기 임성호 대표와 공정거래위원회 한철수 사무처장, 경쟁정책국 정중원 국장, 기업협력국 지철호 국장, 경쟁정책과 김윤수 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연합회 소식



## ■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준수 모니터링' 업무협약 체결

- 국내 최대 로펌과의 업무 제휴로 모니터링 컨설팅에서의 배가된 전문역량 기대

공정경제연합회는 7월 21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준수 모니터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본 연합회 김종선 회장과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대표한 최기록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법준수 모니터링'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측은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향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될 모니터링 컨설팅에서 상호간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번에 업무 제휴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공정거래 전문그룹은 경쟁법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70여명의 전문 변호사와 전문 경제학자, 그리고 공정거래 관련 전문인력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전보다 배가된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컨설팅 업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선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보다 폭넓고 원활한 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준수모니터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최기록 변호사도 "공정경제연합회 회원사의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대응력 향상과 안정적인 범위만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김앤장법률사무소만의 공정거래 전문역량을 충실하게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엄격한 비밀보장 각서 체결을 통하여 모니터링 시에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엄수가 의무화되어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는 본 연합회의 법 준수 모니터링 컨설팅은, 기업이 자체적인 모니터링 능력이나 방법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 내부 감사나 범위만 모니터링에 대하여 본 연합회가 이를 대행하고 점검결과에 대하여 법무법인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전문적인 감사를 통한 실질적인 법 위반의 발견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해결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입니다.

# 연합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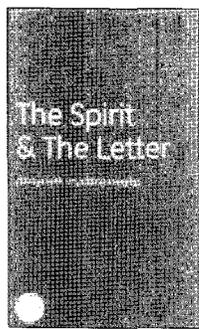


## ■ '2011년 공정거래 해외연수' 실시

- CP 운영 우수기업인 GE 방문 및 FTC 동의를결제 설명 등
- 공정위와 미국 뉴욕에서 국제카르텔 예방 현지설명회도 개최

공정경쟁연합회는 기업의 공정거래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준수문화 창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진 국가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및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자 매년 '공정거래 해외연수'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관리자와 CP실무 담당자 20여명과 함께한 2011년도 공정거래 해외연수는 7월 2일부터 10일까지 6박 9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 등 현지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해외연수의 주요 일정은 글로벌 기업인 GE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의 방문이었습니다.

연수단은 GE 본사 방문을 통하여 CP선두기업이자 다국적 기업의 CP운영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GE는 여러 나라의 경쟁법 적용에 대한 지사관리통제를 미국 본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채널이 구축되어 있었으며, '소통하고 배우는' 기업문화가 이미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저명한 경쟁법 관련 매체에서 지난 5년간 최우수 모범 CP 운영기업으로 GE를 선정하는 등 CP 운영 기업 중 단연 '롤 모델' 기업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GE는 CP가 임직원들의 'Spirit' 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GE에서는 CP가 기업의 비전과 목표이자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GE의 CP 운영 담당자들과의 강연과 대화를 통하여 그들 역시 우리 기업의 CP 담당자들이 CP를 운영하면서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과 별반 다르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CP 운영 담당자는 친근한 상담자의 모습과 엄중한 감독 자로서의 모습을 모두 갖추야 한다는 것 역시 우리 CP 담당자가 갖추어야 하는 덕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편, CP에 있어서 CEO의 의지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CP에 대한 CEO와 경영진의 한결 같은 신념이 기업문화와 기업가정신으로 승화되고 하나의 기업사(企業史)가 되어, 지금의 GE를 가장 오래되었으며도 가장 혁신적인 Compliance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서 존경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연합회 소식



한편, 미국의 경쟁당국은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FT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OJ는 Sherman법을 근거로, TC는 FTC법을 근거로 경쟁법을 집행하면서도 상호 협조를 통하여 경쟁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수단은 FTC에서 '동의를결제'에 대하여 해당 담당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FTC는 다양한 사건에서 동의를결제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 ◎ 동의를결제도 는 기업의 특정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경쟁당국)에 의한 일차적인 위법성 판단이 전제된 사건에서,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행정기관과 피심인인 기업 간의 합의에 의하여 시정방안을 마련하는 대신, 경쟁법에 의한 제재조치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연수단은 GE와 FTC를 방문을 통하여 기업과 경쟁당국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GE의 CP 운영에 대하여 경쟁당국이 갖고 있는 믿음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GE의 노력, 그리고 경쟁법 사건에 있어서 기업의 제안에 대한 FTC의 신뢰와 FTC의 판단에 대한 기업과 시장의 신뢰가 성숙하게 자리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번 해외연수는 본 연합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제카르텔 현지 예방교육' 과 연계되어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7월 6일 뉴저지에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에너지, 기아자동차, 두산 등 대기업의 국내 본사 및 현지 법인의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

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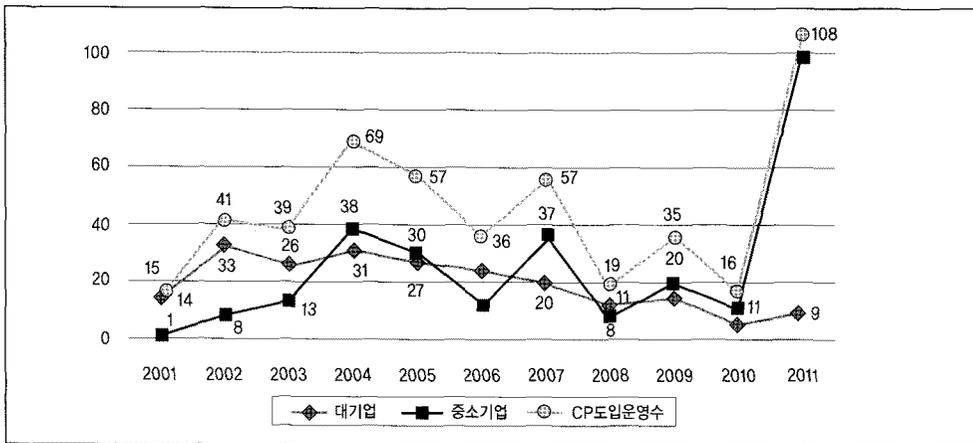
이번 해외연수는 세계적 기업의 CP 운용 모습을 견학하면서 CP 노하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CP 담당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카르텔 사전 예방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와 본 연합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걸음 내디딘 연수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 ■ 2011년도 상반기 CP 사업 현황

◎ CP도입 : CP핵심 7대 요소로 구성된 공정거래법 관련 내부통제 체계 구축 지원



• 2011년도 CP도입 기업 : 나이스디앤비, 원앤원, 정식품, 두산인프라코어 협력사 15개사, 두산건설 13개사, 포스코 협력사 52개사, 현대엔지니어링, 동국제강 등 총106개사

◎ CP편람 리모델링 :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개정 및 공정거래 리스크(Risk) 변화에 따른 임직원 행동지침 및 법규지침서 개정

• 한국암웨이, 두산, 현대로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엔진 등 총 9개사

◎ CP 운영점검

- 기업내 CP의 성공적 정착 및 업그레이드(UP-grade)를 위한 CP운영상황 점검 및 진단, 세부 운영계획 수립 지원
- 유한킴벌리, 보령제약, 코오롱제약, 후지제록스 등 4개사

◎ 법 준수 모니터링

- 공정거래법(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과 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법 등 분야별 법 위반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 및 대응력 향상, 법 위반 리스크 관리,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지원
- 유한킴벌리, 두산인프라코어 등 12개사

## 연합회 소식



## ■ 2011년도 CP 등급평가

- 본 연합회, 2011년 CP 등급평가 행정지원 용역수행자로 선정

공정경쟁연합회가 2011년도 CP등급평가 행정지원 용역수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부터 CP등급평가기관과 지원기관으로 평가절차를 분리함으로써 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본 연합회는 이미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CP등급평가를 수행해온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 'CP실천사무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금년도 CP등급평가는 7월 말까지 신청서와 평가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30일경 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1년도 CP등급평가의 진행절차는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말	8월	9월 중순~말	10월 초	11월	11월 30일
CP등급평가 신청 접수 평가서류 접수	서면 평가	자율준수 관리자 면접 평가	현장 방문 평가	평가 분석	공정위 보고

## 하도급분쟁조정

###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신입위원 위촉

지난 1999년 7월 1일부터 공정경쟁연합회가 운영해오고 있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6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제7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협의회 위원은 △ 공익대표로 김종선 공정경쟁연합회 회장, 정해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석희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 원사업자 대표로 이정훈 GS건설(주) 상무, 장진근 삼성물산(주) 글로벌 조달센터장, 안원형 LS전선(주) 사업지원부문 상무 △ 수급사업자 대표로 최전남 (주)남성기전 대표이사, 황운영 부일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조성원 (주)대우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로 총 9인의 위원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은 정해방 교수, 장진근 상무, 안원형 상무, 조성원 대표이며, 다른 위원들은 연임되었습니다. 협의회의 임기는 2년(2011. 7. 1.~2013. 6.30.)입니다.

한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건설·제조·수리·용역 등 하도급거래에 대한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며, 분쟁당사자가 직접 신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정의뢰된 하도급거래분쟁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하도급거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공정경쟁연합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로 문의(☎ 02-310-3311~3)하여 주시면 하도급 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합회 소식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2011년도 상반기 결산

- 사건대비 조정을 77%, 분쟁신청금액대비 조정을 86% 달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건설·제조·수리·용역 등 하도급거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본 연합회 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2011년도 상반기 업무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1년 6월 24일을 기준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로 총 212건의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정의뢰된 건이 68건이고 직접신고 건은 144건으로, 직접신고된 사건의 수가 약 2배 정도가 많습니다.

신고된 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09년까지 누계된 사건은 조정의뢰된 건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직접신고된 사건 수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분위기가 확대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직접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6월 30일까지는 총 178건이 접수되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 중에는 241건이 접수되어 작년 동기대비 사건 수는 36%나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업종별로 분류했을 경우 용역위탁사건의 비율이 증가한 점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011년도 상반기 하도급분쟁사건 접수 현황 〉 (2011년 6월 24일 기준)

연도	총 접수 (건수)	신고유형별 (건수)		분쟁업종별 (건수)		
		조정의뢰	직접신고	제조	건설	용역
2011	212	68	144	70	82	60
2010	360	156	204	120	157	83
2009(누계)	1,876	979	897	786	988	102

한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6월 29일 ‘제74차 하도급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하여 △ 조정 불개시 3건 △ 조정불성립 13건 △ 조정성립 12건 △ 신고취하 8건 등 총 36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하고 가결하였습니다.

〈 2011년도 상반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처리 실적 〉 (2011년 6월 24일 기준)

구 분	조정결과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조정 불개시	소계
		합의	취하	결렬	불응	민사 소송 등		
사건 수(건)		54	20	22	12	5	21	134
사건 수 대비 조정성립률 (%)		(합의+취하) / (합의+취하+결렬) × 100 = 74/96 × 100 = 77						77
분쟁신청금액 대비 조정성립률 (%)		분쟁신청금액 : 8,970,940천원, 조정금액 : 7,728,351천원, 조정금액 / 분쟁신청금액 × 100 = 86						86

## 연합회 소식



## 교육·연수

### ■ 본 연합회, 지식·인력개발사업에 관한 '평생교육시설' 인가

-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환급과정 운영 예정

공정경쟁연합회는 7월 11일 서울남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식·인력개발사업에 관한 평생교육 시설로 정식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연합회가 공정거래교육 분야에서 최초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정식 인가한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정거래교육을 받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수업료의 일정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결실은 지난해 11월,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에 힘입어 전용 교육장인 FC홀을 개관함에 따라 그 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공정거래분야 전문교육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본 연합회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합회는 향후 평생교육기관 및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의 운영을 통하여 정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체들의 공정거래 관련 교육비용을 경감시키는 한편, 폭 넓은 혜택을 제공하여 회원사들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함으로써 공정거래분야의 교육기회 확대와 공정경쟁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본 연합회 김종선 회장은 “지난 17년간 공정거래 교육분야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전문 강사진의 구성, 그리고 회원사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마련된 최신 교육장을 갖춤으로써 평생교육 시설로 정식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공정거래 전문교육기관으로 도약함으로써 공정경쟁문화 정착과 기업의 공정거래역량 강화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연합회 소식



## ■ 'EU 경쟁법 집행동향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특강 개최



공정경쟁연합회는 6월 9일 FC홀에서 EU 경쟁법 관련 특강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강연회는 'EU 경쟁법 집행동향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현재 우리 기업의 EU 경쟁법 관련 자문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EU 현지 변호사인 피터 카메사스카(Peter D. Camesasca)씨를 초청하여 강연회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강연자인 피터 카메사스카씨는 현재 벨기에의 Covington & Burling LLP의 파트너 변호사로, 삼성 유럽지역 TFT-LCD부문과 D-RAM부문 카르텔 변호 자문을 맡고 있는 EU 및 국제 경쟁법 전문가입니다.

이번 강연은 EU 경쟁법 소개와 주요 카르텔 사건에서의 시사점, 그리고 우리 기업의 EU 경쟁법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이 EU 지역에서의 경쟁법 위반 사전 예방은 물론 범위반 이후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이르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EU 지역에서의 기업 활동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본 연합회는 이번 강연회를 통하여 한-EU FTA 발효에 따라 EU 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에게 국내기업들의 EU 역내 경쟁법 위반을 방지하고, 법집행에 따른 대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두산 계열사 대상, 임원·팀장급 공정거래 위탁교육 실시



공정경쟁연합회는 7월 13일과 14일 이틀간 두산 계열사의 임원 및 팀장급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양 일간에 걸쳐 본 연합회 FC홀과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두산중공업 러닝센터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하도급법과 부당내부거래 및 부당공동행위 관련 3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실시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실시된 교육에서는 두산그룹 7개 계열사 8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급법은 삼정합동법률사무소 최재원 변호사, 부당내부거래는 법무법인태평양 신상훈 변호사, 부당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이준현 사무관이 각각 강사로 나서 해당 법률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더불어 효과적인 범위반 사전 예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두산그룹 6개 계열사 86명이 참석한 창원에서의 교육은 하도급법은 김앤장법률사무소 최기록 변호사, 부당내부거래와 부당공동행위는 부경대학교 김두진 교수가 각각 강의를 담당해 실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률 지식 등을 전해주었습니다.

본 연합회는 이번 위탁교육에서 교육 대상을 임원진으로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임원들의 공정거래 인식 변화와 더불어 교육내용이 전 직원에게 전파되어 공정거래법 위반 사전 예방과 함께 사내 준법의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소식



■ 6·7월 실시교육

분류	교육명	실시일자	강사	참석자
특강	EU 경쟁법 집행동향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6. 9.	Peter D. Camesasca (Covington & Burling LLP) 통역 : 고경민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5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와 현재의 EU 경쟁법 집행 동향</li> <li>• EU 경쟁법 위반시 우리 기업의 대응</li> <li>• 리니언시 제도 운용에 대한 경쟁당국의 입장</li> <li>• 화해제도의 도입 배경 및 적용 사례</li> <li>• 현재 EU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기업의 주요 업종과 주의가 요구되는 기업의 행동</li> </ul>			
특화	하도급 특화교육(제조용역)	6. 21.	공정위 제조하도급과 연구석 사무관 기업 실무담당자	10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및 시행령 개정사항</li> <li>• 하도급법 위반 진단 실무</li> </ul>			
특화	하도급 특화교육(건설)	6. 22.	공정위 건설하도급과 홍용수 과장 김앤장법률사무소 최기록 변호사	4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및 시행령 주요사항</li> <li>• 건설하도급 사례 분석</li> </ul>			
상호출자	공시교육(종일)	6. 23.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이상협 조사관 공정위 기업집단과 임대중 조사관 공정위 기업집단과 김주환 사무관	11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li> <li>• 기업집단 현황 공시</li> <li>•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li> </ul>			
특화	표시·광고법 관련 공정거래교육	7. 5.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이종영 사무관	10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과 제도</li> <li>• 표시·광고 관련 주요 심결·판례 분석</li> </ul>			
특별	하도급 특별교육(서울)	7. 8.	공정위 하도급총괄과 김성삼 과장	8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급법·시행령·지침(개정) 및 고시의 주요 내용</li> <li>• 하도급법 적용범위</li> <li>•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li> <li>• 사건처리절차 등</li> <li>• 향후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급 별점 감점 교육</li> <li>※ 대표 참석시 : 1점 / 임원급 참여시 : 0.5점</li> </ul> </li> </ul>			

연합회 소식



■ 6·7월 실시 위탁교육

업체명	실시일자	강사	교육 내용
푸드머스	6. 1.	공정위 경쟁정책과 구성립 사무관	공정거래법 일반
케피코	6. 9.	법무법인 세종 박주영 변호사	공정거래법 일반
삼성물산	6. 14.	법무법인 광장 김성만 변호사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대위아 (창원/의왕)	6. 16.~17.	전 공정위 국장 김길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농심NDS	6. 17.	중앙대학교 조성국 교수	공정거래법 일반
한솔제지	6. 23.	공정위 대변인실 최영수 서기관 공정위 기업집단과 황효성 조사관 본 연합회 윤광희 실장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기업공시 하도급법
두산 협력업체 교육	6. 23.~24.	경쟁제한규제개혁단 장장이 부단장 공정위 부산사무소 정금섭 과장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한국 오웬스코닝	6. 27.	법무법인 광장 김성만 변호사	공정거래법, 부당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현대 하이스코	6. 28.	김앤장법률사무소 황정곤 전문위원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삼성 에버랜드	7. 7.~8.	김앤장법률사무소 진연수 전문위원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두산 임원교육	7. 14.~15.	삼정합동법률사무소 최재원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신상훈 변호사 공정위 국제카르텔과 이준현 사무관 김앤장법률사무소 최기록 변호사 부경대학교 김두진 교수	하도급 공정화 제도 부당내부거래 및 부당공동행위 부당공동행위(국제카르텔)
서울우유	7. 15.~18.	본 연합회 홍미경 국장 성신여대 황태희 교수	대리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담합) 예방교육



■ 8·9월 예정교육

분류	교육명	교육일	교육내용
일반	공시교육(기업집단)	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li> <li>• 기업집단 현황 공시</li> </ul>
일반	부당공동행위 예방교육	8.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공동행위 근절과 예방을 위한 제도의 이해</li> <li>- 부당한 공동행위의 8가지 금지유형</li> <li>- Leniency Program(자진신고감면제도)의 이해</li> <li>- 국내외 공동행위 심판결 사례를 통한 실무의 이해</li> </ul>
특별	하도급 특별교육(서울)	9.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도 주요 내용</li> <li>- 하도급 벌점 감점 교육</li> <li>- 대표 참석시 : 1점 / 임원급 참여시 : 0.5점</li> </ul>
업종	특수거래분야 교육	9.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거래 분야 실무 가이드라인</li> <li>-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정책 방향</li> <li>-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정책 방향</li> <li>-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정책 방향</li> </ul>
일반	공시교육 (대규모 내부거래)	9.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li> <li>• DART 이용에 대한 실무</li> </ul>
전문연수	알기 쉬운 하도급법 (노동부 환급과정 - 예정)	9. 26.~27. (16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부 환급과정으로 실무자와 전문가 모두 수강 가능 교육</li> <li>- 원사업자 의무행위(이론 및 사례)</li> <li>- 원사업자 금지행위(이론 및 사례)</li> <li>- 서면실태 및 공정위 조사 실무(이론 및 사례)</li> <li>- 공정거래협약 실무(이론 및 사례)</li> </ul>

## 연합회 소식



## ■ 온라인 교육과정

- 기존 과정인 '공정거래 역량강화' 활성화 및 신규 과정인 '하도급 역량강화' 공급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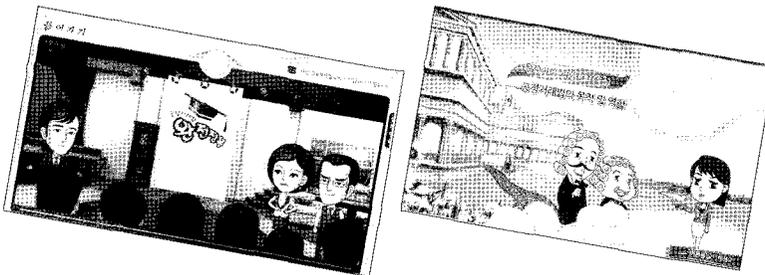
'공정거래법 전문 인터넷 원격 훈련기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정경쟁연합회는, 현재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유일하고 공신력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연합회가 운영 중인 공정거래 교육과정은 삼성SDS멀티캠퍼스, CyberMBA, 크레듀, 웅진패스원, 한화S&C, 메가넥스트, 두산 동아 등 주요 이러닝 서비스 업체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정거래 교육과정은 사업주 지원 환급과정으로, 기업에서 수강 시에 8만원인 교육과정의 최대 34,9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과정으로 '(신)공정거래법 완전정복(입문과정)' 과 '(신)사례로 배우는 공정거래법(초급과정)' 이 있습니다. '(신)공정거래법 완전정복' 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각 항목별로 알기 쉽게 풀이한 기초입문과정으로, 실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처음 접하는 임직원들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신사례로 배우는 공정거래법' 은 이론 위주의 강의가 아닌 각 산업분야별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공정거래법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한 교육과정입니다.

두 개의 교육과정 이외에도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 환급과정인증을 요청 중인 중급과정으로 '공정거래 역량강화' 과정과 '하도급 역량강화' 과정도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 역량강화' 과정은 공정거래 업무 담당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중급 과정으로, 실무 중심의 이론과 최근 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역량강화' 과정은 현업의 실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제조·건설·용역분야에서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최신 법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단계별로 과정을 구성하여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연합회 온라인 교육과정 담당자(02-310-3315, jallay@hotmail.com)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법 완전정복(왼쪽)과 공정거래 역량강화(중급, 오른쪽) 과정 캡처 이미지 >